

6.1지선 영천시장 후보 박영환·이정호·최기문 3자 대결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장 후보 내지 않아...13일 본후보 등록일
 道の원에 이영수·이춘우·윤승오... 시의원 22명 출격 1.83대 1



박영환(국민의힘) 이정호(무소속) 최기문(무소속)

오는 6.1 지방선거 영천지역 대진 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영천시장의 경우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천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예비)자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박영환 전 경북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호 농업회사(주)발마늘식품 대표 ▲무소속 최기문 현 영천시장 3자 구도로 압축됐다.(5월 4일 현재) (정당, 가나다 순)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1일 박영환 전 도의원과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2명의 영천시장 후보 당

경선 결과 박영환 전 道の원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영천시장 선거는 사실상 박영환 전 경북도 의원과 최기문 현 영천시장의 빅매치가 관전 포인트가 될 공산이 높다.
 한편,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기문 영천시장은 또다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천시장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지역 보수 정당(국민의힘) 입당 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무소속으로 역대 재선에 성공한 예가 전무하기 때문

에 그 성공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더군다나 지난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속으로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이 열세속에 참패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했고, 윤석열(당선자)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후방 지원에 나설 경우 무소속 재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한편, 道の원 출마자는 제1선거구에 ▲국민의힘 이춘우 현역 도의원이 현재까지 유일하고, 제2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농업인교 ▲국민의힘 윤승오 현 道の원 2과전으로 대결한다.
 또 市의원 후보에는 ▶2명을 뽑는 가-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순례 현역의원과 국민의힘 △우애자·△김선태 현역의원 3명이 맞붙는다. ▶3명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형락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호·△서만울·△김종욱 후보, 무소속△이영우·조성락 후보에 4일 김병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가세하면서 7

명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또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인 다-선거구에서는 3명을 뽑는데 △조창호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하기태 전 영천시행정자치국장 △이영기 현역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용문·△전종천·△정희영 후보가 출마해 6명이 격돌한다.
 ▶2명을 뽑는 라-선거구에서는 △권기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같은 당 소속 △이갑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서정구 현역의원 등 3명이 격돌한다. ▶시의원 비례대표에는 국민의힘 △배수에 국민의힘 당 간사와 △박주학 전 사무국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에는 △조상임 전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이 등록할 예정이다.
 영천지역 시의원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2명이 출마해 12명이 살아남게 된다. 본 후보등록일은 13일 까지며, 5일 현재 약 1.8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장지수 기자

반론보도

영천시, 불공정인사 논란 및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등 관련

본지는 2021.4.8 영천신문 1면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A씨 내부 전산망 폭로>, 2면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속...근무성적평정조작 의혹 불거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영천시는 시장이나 인사부서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 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로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반론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비례대표 공천 재심 논란

신청서에-민주당 비례대표 B씨를 최기문 영천시장이 추천?
 -당이 영천시장 후보 안내면 우리 최기문 영천시장 밀어준다?
 지역 당협, "모두 거짓이다. 잘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 것"

지역 더불어민주당(당협위원장 정우동, 이하 민주당) 6.1지방선거 영천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해 지역 A씨가 경북도당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있다.
 신청서 재심 사유는 「지역 당협위원장이 저(A)와 B씨를 경선으로 확

정한다. 위원장은 또 지난 4월22일 당 사무실 회의에서 B씨를 부탁한다. 당 고문의 말을 인용해 (당)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무소속 현 영천시장을 밀어준다. 현 최기문 시장이 비례대표 B씨를 추천했다.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과장이 예상된다.
 가뜰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시장이 민주당과의 거리좁히기를 하고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청서 과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당협 위원장은 "A씨의 재심신청 내용을 알고있다"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은 도당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위)2명이 신청했지만 A씨가 탈락했으며, 나는 통보만 받았다. 추천이라는 것

은 없는 것이다"며 A씨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니 잘 확인하고 보도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서에 거명된 당 고문(C)씨는 자신에 의해 "최기문 영천시장을 당선시켜 민주당에 입당 시키려는 것은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중앙당까지 내려와서 이를 해당행위로 언급한바는 있다."고 밝혔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금전이 오갔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고, 그 일은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최기문 시장은 "민주당의 일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이를 일축했고, 반론권 차원에서 3일과 4일 신청서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경북도당은 연락을 주겠다고만 한 후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반면,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 당 D씨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B씨가 비례로 적합하다고 했다."고 확인해 최 시장 측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협은 "D씨가 A씨가 무난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이같은 말을 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검수완박 반대 국민대회

“미친 자(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일시 : 2022. 5. 7(토) 낮 12시 부터 장소 : 광화문 이승만광장 (5호선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6번출구,교보문고 3,4번출구)

제9차 전광훈 목사의 성령의 나타남

강사 : 전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 강헌식 목사 외 다수

●등록비 : 무료 (*사전접수 바랍니다) ●숙식 : 개인부담 ●대상 : 제한없음 ●집회시간 : 오전6시, 10시, 오후3시, 7시

일시 : 2022. 5. 9(월) 오후 3시 ~ 12(목) 장소 : 오산리 최자실금식 기도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국민서명운동 인터넷 서명 : <http://m.khmon.com/sign/1>

참여단체 : 5.18사태국립대책국민연합, KLO, KO-US, 경북애국시민연합, 고대교우투루스포럼, 광화문외북기도회, 구국총연합회, 국가재건원로회의, 국민노동조합, 국민지방운동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기독교장로회, 나라사랑총연맹, 대한민국3.1회, 대한민국공신화반대, 대한민국기선양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수호영령위원회, 대한민국수호호국단,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적진회의, 대한애국동지회, 대한애국시민연합헌법수호위원회, 북양민주화위원회, 사)자유민주주의연대, 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 서울학부모연합, 순복음나라사랑, 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 염마방송, 염마부대, 여성정책협의회, 월드시니어 유니온, 올인모, 육군기행사관구국동지회, 은기비마해나팀, 여성자유민주애국연대, 인천애국시민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주의운동본부,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교회지킴이, 전국국민의병대, 전국기독교교사민단체, 전국대학연합구국동지회, 전국여성구국총연합회, 전국여성싱크탱크, 정책피해자모임, 주권수호국민연대, 남북자동지회, 태극기에국시민연합, 태풍애국단, 파주애국시민연합, 한국자유수호협회, 한국참치미군실종자지원연대, 한국회적자연맹,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국민참여서명단 외 1400개 시민단체.

회비납부 : 국민 034501-04-175799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영천시 통큰 배짱,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영천시의회 발끈

의도적 자료제출 거부는 의정활동방해 및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행안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법령의 요구의무 위반' 경남도의회, 집행부 자료제출요구 거부 못하도록 조례 제정해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의 법적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서는 의회가 영천시 장 앞으로 발송된 것이어서 이번 거부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의회는 지난 3월30일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8.7.1부터 현재까지 시청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현황을 4월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의회 의장 명의로 요청했다. 내용은 교육일자, 집행예산, 강사(소속 및 이름), 교육내용 4개 항목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4월20일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묵묵부답' 의회 자료제출 요구 기간을 20여일이 나 넘긴 명백한 거부다.

이를 두고 조영제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권이 있다. 시민들이 의회에 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4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같은 자료제출요구

거부는 "임기 말 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조 의장은 "이같은 거부행위는 영천시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편의적 횡포며,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의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어 반드시 그책임을 져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③에는 회기 폐회 중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시행령 38조②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총무과)는 이를 거부했다. 의회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한 서류 준비기간 3일을 넘기고도 20여일 동안 명확한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해당 자료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영천시 총무과는 본지 질문에 "취재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총무과는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는 총무과가 아닌 기획실로 가야한다"면서도 "결재 과정에서 행정자치국장에게 가있다"고만 말할 뿐 제출 거절 사유와 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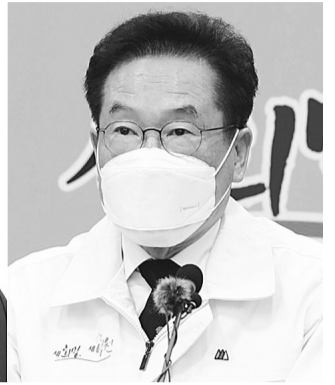
이를 두고 A의원은 "이런 무소불위의 영천시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법적 고유권한을 막무가내로 거절한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의회에 대한 폭거"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도 영천시의 이같은 일방적 자료제출 거부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자료를 주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도 강제할수 없는 처지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서류제출요구 불응시 제재방법에 따른 행안부 답변



영천시의회 의장 조영제



최기문 영천시장

(질의회신 2011.1.24)에 따르면 「통상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 협의와 행정환경 등을 통해 서류의 제출 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지만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 또는 거부하면 지방의회로부터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정당한 법령의 요구의무에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경남도의회는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을때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만약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것이 의회 고유 기능인 감

시·감독과 견제권을 의도적으로 업무(의정활동)를 방해한것이 성립되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 분석이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대리시험을 치거나 경매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타인에게 재산권 침해를 입히거나 또는 기타 위력(威力)으로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1면 사설>

장지수 기자

김병하 시의원,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당이 나를 속여 모욕감 느껴... 당에 남아 있던 미련 송두리째 날아가”



영천시의회 김병하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시의원 나-선거구=금호 청동, 신명, 화산, 대항>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당 공천과 관련해 이의신청으로 지난 4월 29일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 하루 전인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나-선거구에 이미 다른 사람을 단수 공천해(김병하)자신을 포기하도록 유언비어(도의원 출마설)를 터뜨리고, 재심한다고 억지 핑계를 댔다"면서 "저를 속여 이에 분노와 모욕을 느낀 것은

물론 저에게 남아 있던 당에 대한 미련까지 송두리째 소멸 시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1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금고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인 '윤창호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13일 징역형이 사라지고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피선거권이 되살아나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은 "주민들의 민원처리로 삶을 개선해 행복 추구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해왔다"면서 행복택시·농

민주당·청동면 버스요금 공정화, 영천시 상수도 급수, 다자녀 가정 학습 지원 등 조례 발의와 실현 업적을 강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나-선거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형락 후보와 국민의힘 김상호·서만울·김종욱 후보, 무소속 이영우·조성락 후보 등 7명과 경합을 벌여 3명이 선출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더욱 활기찬 마음으로 농민의 적극적인 대변자가 되겠다"며 재선 도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역 당협은 4일 "김 의원은 공천이 도의원(제2선거구)으로 되어 있고 심사 부적격자로 공천 대상이 아니다"고 경북도당을 대신해 알려왔다. 장지수 기자

올해 영천노인대학생 180명 입학

성낙균 회장, 입학식 인사에 6.1지방선거 빨간·새파란·하얀옷 발원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성낙균)부설 노인대학 제27기 입학식이 3일 오전 영천시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열렸다.

입학식에는 윤문조 부시장, 조영제 의장, 김수용 이만희국회의원사무국장, 시의원 등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입학생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입학생은 당초 200명이 지원했으나 강의실 수용여건으로 180명만 허용됐다. 연령으로는 최저 만66세 최고 만91세로 60대(3%), 70대(66%), 80대(30%)다. 남자는 41명, 여자 139명으로 최고령 입학생은 손병탁(남, 91세)씨다.

노인대학은 교양, 건강관리 및 현장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노래교실은 코로나-19관계로 당분간 쉬게 되고, 올해는 총4개반(화요일 2개

반, 금요일 2개반)으로 영천시종합복지센터1층 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낙균 노인회장은 이날 입학생을 축하하고 축사를 통해 "지금은 6.1지방선거 시즌으로 밖에 나가시면 빨간옷, 새파란옷, 하얀옷 많이 입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영천을 빛내고 잘 할사람 그사람이 과연 누구냐? 선택을 잘해 주셔야 영천시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판단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입학식과 동떨어진 선거용 발언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이영기·우애자 두 예비후보는 입학식 끝에 마지막까지 남아 단상 아래서 큰절로 읍소해 남아 있는 노인대학생들이 응성거리기도 했다. 박한우 기자

영천 올해 첫 모내기... 북안면 효리·주남들

2021년보다 14일, 2020년보다 23일 각각 빨라

영천시는 22일 북안면 효리 박기남씨와 주남들 문종복씨 농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영천은 매년 첫 모내기 일정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영천시 올해 첫 모내기는 2019년(안하동 최영심씨 5.10일)보다 18일, 2020년(효리 박기남씨 5.15일)보

다는 23일, 2021년(주남들 문종복씨 4.29일)보다는 7일, 2018년(고경 박재효씨 5.8일)보다는 16일 각각 빠르다.

하지만 올해 박기남씨의 경우 10,000㎡의 농지에 조생종 벼를 이앙해 오는 8월 수확할 예정이나 5년 전인 2017년(4.18일)보다 오히려 4일 늦게 이앙했다.

한편, 이날 주남들 문종복 농가에서도 동시에 첫 모내기를 시작해 영천은 6월 중순경 대부분 모내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영천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안전수칙 집중 홍보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산림 화재가 빈발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 2018년 산불발생 총 건수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산불이 58%로 확인됐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

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캠핑활동 자제 △등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등이 있다.

김용태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육군3사관학교, 2년 6개월 만에 캠퍼스 개방... 생도 가족 초청

지난달 29일 생도·생도 가족 대면 상봉 특별 행사 일상회복 첫걸음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소장 고창준)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2년 6개월여 동안 굳게 닫았던 학교문을 활짝 열었다.

학교는 29일 앤데미 시대 일상회복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학교를 전면 개방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방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입학식, 졸업 및 임관식 등을 온라인 생중계나 SNS

를 통해서만 전하고 가족과 생도들이 비대면 축하식을 가져온데 따른 생도들 격려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장병들과 생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착한 2,000여명의 생도 가족들은 3사 27기 동기회원들을 만나 생활관, 교육시설, 호국정 등 학교시설 곳곳을 산책하며 교내 충성대의 봄을 만끽하며 일상회복을 즐겼다.

학교장(고창준 소장)은 이날 "오늘 행사가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딛고, 만남과 격려, 추억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도들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조국에 충성을 다



하는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글>=29일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의식을 관람하는 생도 가족>

유아숲체험 교육장 '두 동강' 한 가운데 8m도로

영천시 "우리 소관 아냐" 관리청 "영천시가 숲 이용 불편 해소해야"



경북 영천시 망정동 14-5번지 별빛유아숲체험원이 준공 2년만에 영천시가 상수도개선 사업으로 어쩔 수 없다며 한 가운데 폭 8m 도로가 개설돼 두 동강나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당초 취지가 퇴색 될 우려가 제기된다.(사진)

'별빛유아숲체험원'은 남부지방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이 국비 3억5천만여원을 들여 영천시 망정동 일대(전경대 뒷 동산) 4.7ha에 2020년 3월 준공했다. 통나무다리 놀이시설과 숲속교실·편의·운동 등 24종의 유아숲체험 시설로 도시어린이들이 숲속 체험활동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유일한 유아숲체험 교육장이다.

당시 영천시는 "자연을 벗 삼아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으로 향후 자연친화적 숲

생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별빛녹색도시 영천을 만들겠다"며 미래 친환경 시설 청사진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천시가 40억원을 투입해 이곳 부지(국유림)를 매입해 정상에 대형 급수장을 설치하면서 시설 한 가운데 폭8m 도로를 개설해 올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결과 도로는 마무리 단계다. 아 이들이 뛰노는 주변에는 간벌목들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벤치는 낡고 부식 돼 이용이 어렵다. 쓰레기는 물론 곤충서식지와 나무로 만든 동물모형조차 부패한데다 가운데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마저 나온다.

지역 A유치원 관계자는 "시설이 지저분해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한 가운데 도로가 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이럴 거면 수억원을 들여 왜? 만들었느냐"며 비난이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한 관계자는 "숲체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은 알지 못한다. 도로는 상수도개선사업 일환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도 "도로는 일반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또 "관리청과 협의를 거친 것이다"고 말했다.

4일 현장 확인결과 공사관계로 주차장과 유아들의 출입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시작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 영덕 관리청은 "5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출입 통제는 물론 필요시 어린이 안전웬스 등을 영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카메라고발

영천시가 불법현수막 게시 앞장... 일반단체들 경쟁적 게시

게시 하루만에 철거단속 당한 시민 "영천시는 되고 우리는 안되냐"며 분통

6.1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영천시내 도심이 행정과 각 단체들의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도로 주요 자리를 차지해 도심 미관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영천시청 앞 오거리에는 농어민수당 지급 등 영천시가 2개, 학교·단체가 3개, (구)국민은행오거리 1개(영천시) 등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더군다나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까지 행정게시대가 여러 곳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오거리 등 시인성이 좋은 사거리 및 도심 주요 자리에 그것도 가로수와 공공시설물 등에 끈으로 동여 매거나 흉물스럽게 설치돼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

옥외광고물법에는 도로표지, 교통관련시설, 전봇대, 가로등과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지만 영천시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공직자의 자세에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완산동 대로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8세)는 "영천시가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현수막 게시를 남발하고 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지난달 28일 현재 ①시청오거리, ②가로수를 동여매 끈, ③시청오거리에 텅텅 빈 행정게시대 모습

같이 밝혔다.

또 최근 영업을 위해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하루 만에 불법광고물로 철거단속을 당한 한 시민은 "영천시는 불법이 되고 우리는 달면 안되느냐"며 불공정한 영천시를 향해 격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관리(철거 등)는 각 읍면동에 위임돼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자

新羅王孫 萬派一源

종인여러분을 모십니다

- 영천시거주 박씨성을 가지신 본인과 사위, 며느리이신분도 어드분이시든 환영합니다.
- 종친회 사무실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사오니 방문해 주셔서 따뜻한 차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인명부가 5월중 발간되며, 각 읍·면·동 분회단위로 5월중 배부될 예정입니다.
- 종친회관 주소 : 경북 영천시 보목2길 3 (야사동 알파문구 건너편)

宗綱三是 (종강삼시)

崇祖 (송조)	조상을 받들자.
愛宗 (애종)	종친을 사랑하자.
育英 (육영)	인재를 기르자.

- 사무실 ☎054)335-0988
 - 종친회장 ☎010-4466-1056
 - 사무국장 ☎010-3504-6148



종친회관 외부



종친회관 내부



영천호국원 참배 (220103)



종친회보·인명부 발간 현판식 (220103)



시조왕 추향대제 (220321)



신라오릉 추향대제 (220321)



2022년 이사회 (220430)



인명부발간 편집후기발표 (220430)



박씨 영천시 종친회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수호 활동보고서 채택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일본 독도만행 규탄대회, 조례 추진, 관련 발언 등 특위 활동 담아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 2년 동안 독도수호 활동상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수)는 28일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11대 하반기 2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올림픽조직위의 일본지도 독도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에 대해서 규탄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촉구했다.

(위원장 박관수, 부위원장 이재도, 위원 권광택·박정현·박태춘·신호광·이철구·장경식·정영길 의원)

특위 위원회는 독도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개정



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노력해 왔다.

박관수 위원장(김천)은 특위 위원들과 함께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대

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역점시책 평가 9개 우수 시·군 선정

경주·의성(각1억6천5백만원), 안동·경산·칠곡·성주·군위(9천만원), 영주·청도(6천만원)

경북도는 지난해 1년동안의 도정역점시책 평가한 결과 도내 23개 시군 중9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지난 달 25일 발표하고, 각 시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최우수에는 경주시와 의성군, ▶우수에는 안동·경산시, 칠곡·성주·군위군 ▶도약상에는 영주시, 청도군이 각각 차지했다.

영천시는 지난 2017년 김영석 시장때 도정주요시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시·군에 올라 상금(사업비) 1억원

을 받으며 있으나 2019년과 지난해 각각 도약상을 받아 상사업비 각 5천5백만원을 받게 전부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실적기간은 '21년도 1년간이며, 평가지표는 총 105개로 합동평가 93개 지표, 도 역점시책 12개 지표로 평가됐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경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회보장분야와 재생에너지 3020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역사·문화적 장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문무대왕면 명칭 변경, 한옥문화바람회 개최 등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시·군에 ▶최우수 시·군(경주,의성)사업비 각 1억5천만원,포상금 각 1천5백만원 ▶우수 시·군(안동,경산,칠곡,성주,군위)사업비 각 8천만원,포상금 각 1천만원 ▶도약상(영주,청도)사업비 각 5천5백만원, 포상금 각 5백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역점시책에 열심히 일한 시·군은 성과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도민의 행복과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우 기자

청도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가' 또 합격

마을행복학습센터 지속 운영 평생교육 저변확대 높게 받

청도군(황영호 권한대행)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또다시 합격했다.

군은 지난달 22일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0년에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3개 영역(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10가지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청도군은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이 된 후 최근 3년(2019~2021)의 운영실적 평가에

서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와 연계한 지역 평생교육 브랜드화 달성 노력, 마을행복학습센터 운영 확대, 프로그래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군은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습·봉사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주도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을 높게 평가됐다.

황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에서 우수한 점은 더욱 살리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청도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광지 홍보홍 60초 숏폼 영상 공모

유튜브 대상에 300만원

경북도는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알리고 관광지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2022 경북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영상 플랫폼 대표적인 틱톡

(Tiktok), 유튜브, 애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짧게는 15초 길게는 10분 길이의 웹드라마·웹예능 등 숏폼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 희망자는 '경북의 숨은 관광지 알리기'와 '경북 관광지 즐기기' 중 1개를 선택해 60초 내외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 제작하여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후 지원서와 함께 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50만원을 비롯해 상품권, 경상북도 관광 기념품, 기프트콘 등 총 286팀에 상금과 상품, 경품을 증정된다.

또 대상, 금상, 은상 입상자에게는 추가 영상 제작에 따른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경북나드리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거구, 6.1지방선거부터 시·군의회의원 4명 증가, 도의원 1명 증가

도의원 정수 총 61명(지역구 55석, 비례 6석), 시·군의의원 총 288명 확정

오는 6.1 지방선거부터 경북도 시·군의회의원정수가 당초 284명에서 4명 늘어나 288명, 또 선거구는 105곳에서 1곳 늘어난 106곳으로 증가된다. 조정 선거구는 8개 시군 33개 선거구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0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경상북도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군의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로 조정됐다.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각 1명, 구미가 2명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총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61명이다.

고우현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의원은 엄정하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해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매년 8월 8일 '섬의 날' 법정기념일

내년 4회 행사 울릉도에서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기념행사를 통해 섬 발전 정책과 다채로운 문화·체험 등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올해 3회째다.

*〈섬의 날 행사 : 2019년 제1회(목포·신안), 2021년 제2회(통영), 2022년 제3회(군산)〉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울릉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유치를 위해 천혜의 생태관광지인 울릉도·독도의 희소성과 역사성, 접근성, 미래 발전가능성, 국민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계획 등 유치 열의를 피력하여 섬을 보유한 3개 지자체 중 선정공모를 통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는 내년 행사 개최 시 단 순히 섬의 날 행사를 넘어 8월 8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 울릉도·독도 방문의 해로 정해 ▶울릉도·독도 국제 트레킹 대회 ▶오징어 축제, 해변가요제 ▶산악자전거 챌린지 대회 ▶독도어울림 콘서트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도·독도등 섬 문화권의 인문생태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섬진흥원과 오는 7월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섬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영천신문' 인터넷판 '영천투데이' 클릭
오늘이 보입니다 www.yctoday.net

경북 영천 (주)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연구개발비 3년간 10억, 6년간 최대 20억원 판로개척, 인재육성 등 지원 받아



지난달 15일 경북도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지역 선도기업 지증서 전달식(왼쪽 첫번째가 영천시 도남동 (주)루소 김항성 대표)

경북 영천 (주)루소(대표 김항성)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루소'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 소재 폐자원(플라스틱 등) 재활용 기업으로 2020년 년매출 114억원, 수출액 35억원, 고용인원 12명의 중소기업이다.

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영천 소재 루소를 비롯해 대동에스엠(경산), 원텍스(구미), 지텍(김천) 등 4개사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 기업으로 선정했다며 이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루소'는 2009년에 회사를 설립해 영천에 본사를 두고 폐플라스틱 가공으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재생산해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에 쓰이는 특수기능성 합성수지를 만드는 기업이다. 한 달에 약 1천t 가량의 다기능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영천시 스타기업인 '루소'는 2019년 수출 100만불탑을 달성하고, 또 2020년에는 경북 스타기업인증 및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루소'는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으

로 배합기를 최신화로 설비하는 등 경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신제품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청취를 통해 10개 신청 기업 중 경북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도기업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400억원,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12.6%, 최근 5년 평균 매출

증가율 16.3% 이상 등이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10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4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올해 연구개발 과제기획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 5000만원과,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수출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이 지원된다.

또 협업 성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를 3년간 10억, 6년간 최대 20억원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도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존중과 명예 '섬김의 보훈'정책 추진... 전국 최초 지자체 국가유공자 장례차량 운영

이철우 도지사, 호국보훈의 달 존중과 명예 드높이는 보훈정책 패러다임 만든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전국 최초 지자체 국가유공자 장례차량을 운영하면서 존중과 명예를 더 높이는 '섬김의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27일 경북도는 대구지방보훈청, 대한민국공공수훈자회 경북지부, 경상북도사회, 농협은행, 대구은행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섬김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은 ▶지역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 100병상 이상 보훈위탁병원(15개소) 및 농협, 대구은행(122개소)에 보훈가족 우대창구 설치와 우대혜택 제공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예우다. 경북의 보훈대상자는 53,600명(본인 35,108명, 유족 18,492명)이다.

또 오는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사, 공연 등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해 좌석배치를 배려하는 등 의전 상 예우를 다하고,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해 예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참전명예수당 재설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독립영화

제작 및 영화제, 항일의병운동 재조명 등 보훈선양 사업들을 추진해 보훈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한편, 영천시는 오는 6월 25일 그동안 코로나-19관계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6.25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와 공동주최·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예우와 존중을 느낄 수 있는 표상이 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라가 책임진다"면서 섬김의 보훈정책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영천 보현산휴양림 1일부터 부분 재개장

영천 보현산자연휴양림이 다음달 1일부터 부분 재개장한다.

코로나19와 공사로 2020년 12월부터 휴장했던 휴양림이 2년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숲속의집 9동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영천시가 3일 밝혔다.

보현산자연휴양림은 자연속의 쉼을 주제로 숲속의집14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 다목적구장, 데크산책로 등을 갖춰 자연 속 힐링 쉼터로 소개되고 있다. 또 휴양림 내부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공예 체험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숲속의집 5동을 추가로 건축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11월에 모두 개장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미·포항·영천, 경북 투트랙 경제 축 활성화 원동력 마련"

경북동부권역 철강·자동차산업 벨트 조성, 30개 사업 5887억 투자

영천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영천시 채신.본촌동.금호읍 구암리일대)가 포항국가철강산업단, 경주외동산업단과 함께 경북 동부권 산업단지 사업에 선정됐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산단대개조 지역선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0개 사업에 국비 3105억원 등 총 5887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대개조에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단대개조 사업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된다. 광역지자체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산업단지 중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주요 골자로 정부가 2020년 경북(구미권)을 포함한 5개, 2021년 5개, 올해까

지 총 15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 계기로 경북 서부권 경제의 중심인 구미와 동부권 경제의 중심인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2개의 경제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기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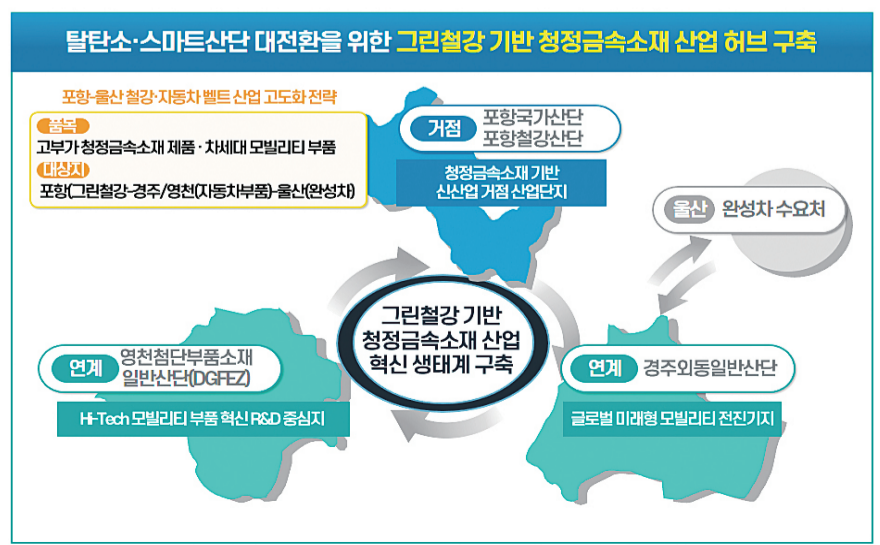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단은 지역 내 자동차부품 혁신기관과 연계해 철강 자동차·융합 R&D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다.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지에서 탈피해 기업들 간 R&D 협력강화를

통해 차세대 그린부품소재 R&D 중심지로 도약을 꿈꾼다.

포항은 현재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포스코 중심 산업구조를 재편해 청정금속소재 기반 신산업 거점 산단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경주는 영세 노후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포항과 영천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스마트 실증 인프라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미래형 모빌리티 전진기지로 재도약을 도모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공모사업 선정은 구미와 포항, 경상북도 투트랙 경제 축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간 침체된 철강, 자동차부품 중심의 포항권 경제를 활성화해 경북 전체의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장] 정당, 후보자별 가나다순

[도의원 선거구] ★제1선거구(금호, 청통, 신녕, 화산, 북안, 대창, 서부, 완산, 남부), ★제2선거구(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 동부, 중앙)

[시의원 선거구] ★가-선거구(북안, 서부, 완산, 남부), ★나-선거구(금호, 청통, 신녕, 화산, 대창), ★다-선거구(동부, 중앙), ★라-선거구(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박영환 전 경상북도의원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까지 연장 추진
- 2) 한국마사회 분사 영천 이전 추진
- 3)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 추진

◆ 영천시장에 꼭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영천은 지금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우리 영천 발전의 동력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편, 내 편'이 아닌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며, 모두를 포용하고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영천은 지금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과 경북도지사, 국회의원이 하나되어 '원팀'을 이룬다면 영천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저 박영환은 22년간의 정치경험속에서 얻은 인맥과 정치적자산을 바탕으로 얻은 시·도정경험이 어우러진 준비된 후보로서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시장으로 당선돼 영천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제 저 박영환이 여러분과 먼저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시점으로 우리 고향 영천의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당선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후보 시절 1호 공약인 코로나19 피해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약속으로 시민의 민생경제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지난 3월, 정권교체로 우리 영천도 '대도약'의 전환점과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박영환은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하나 된 영천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영천시민이라면 모두가 '잘 사는 영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소통과 상식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영천의 힘' 박영환이 위대한 영천시민을 섬기며 자신 있게 일할 열정과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에서 태어나 영천에서 자란 영천사람, "끝까지 영천을 지키는 박영환"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시장으로 당선돼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력 및 경력

- ▶영천중앙초·영동중·고, 영남대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 ▶제3,4대 영천시의회 의원, 전)영천 청년회의소 회장, 전)경상북도학원연합회 부회장, 중소상공인협회 영천지회 자문위원, 전)경북도의원, 현)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무소속>
이정호 현 농업인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15만평 푸드코(Food Complex) 농식품제조수출시설
- 2) 농촌금융대개혁(농협출자금반화, 다중금융기관병합)
- 3) 마늘, 양파, 무우, 배추, 고추 물가사정제

◆ 영천시장에 꼭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영천은 대도시와 다른 농업지역이어서 농산업을 주민의 주 소득원이며, 농업지역에 농업경영능력이 전문한 경찰출신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영천시민의 불행입니다.

영천은 892개의 천혜의 인공저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농업 생산과정은 여전히 재래식 비중이 높아 전문농업인 출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제조, 수출의 경험을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갖춘 저만이 확실히 성취할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주민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진자인데, 지난 세월동안 영천시장들의 행적을 돌아보면 기대에 현저히 못미쳐, 생육신의 피를 이어받은 저가 엄정하고 열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수한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젊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천의 백년 초석을 다지려면 강인한 체력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이 이조건을 갖추어야 만 인구감소가 매우 가파른 영천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젊은 이정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당선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영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민의 단결된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간절히 호소해 반드시 시민이 하나되는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지자체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사람들이 의지대로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지방 선거가 중앙 정치문화에 예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제조와 수출을 해왔고, 약 20여 국가를 경험하여 견문이 넓고 외국어가 능통합니다. 저는 59세로 이번엔 당선되지 못하면 4년 뒤에는 60대 중반이 되므로 그때는 신체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와 큰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되는 나이가 돼 재출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육신의 후손 이어서 누구보다 자기자신에게 엄격한 기질 때문입니다.

◆ 학력 및 경력

- ▶청통초·중, 대구상고, 계명대 졸업(법학·회계학) ▶농업회사(주)발마늘식품 대표, 하양향교장, 석촌의료법인감사, 벽진이씨, 생육신 경은선생의 18대후손,

<무소속>
최기문 현 영천시장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까지 연장 추진
- 2) 종합병원 응급실 보강... 위급시 시민생명 골든타임 확보
- 3) 경마공원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영천시장에 꼭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시민행복과 영천 발전만을 생각하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①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② 대중교통 무료환승, ③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 승인, ④ 영천담 상류 하수처리장 설치, ⑤ 분만산부인과 건립, ⑥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 ⑦ 자양면 상수도 개설 문제 등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숙원사업들을 기적같이 이루어 내며, 위대한 영천을 만들 기반들을 차곡차곡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영천에 도시철도가 다니는 기적을 하루 빨리 이루어내야 하며, 경마공원 개장과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문화예술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신 성장 사업들과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영천의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저 최기문의 열정, 추진력을 더해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고 싶습니다.

◆ 당선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전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기문, 약속 한 것, 지키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영천, 살고 싶은 영천,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소통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소속의 힘입니다.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는 6월 1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학력 및 경력

- ▶북안초,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국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치안비서관(전), 제11대 대한민국 경찰청장(전), 영천시장(현)

청년일자리,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주요사업**
- 취업특강 및 컨설팅
 - 구인·구직 만남의 날(Job Meeting Day)
 - 취업캠프(대면, 언택트)
 - 청년 구인 기업체 홍보 및 지원
 - 회원사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 청춘공감카페 운영 등



영천상공회의소

도의원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춘우 현 경상북도의원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영천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 2) 스마트농업 시설 확대와 신품종 지속개발 및 농가소득 안정화
- 3)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기반시설확충

◆학력 및 경력

▶북안초, 영안중, 영동고, 영남대 경영대학원(경영학박사)
▶전) 제5·6·7대 영천시의회의원, 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현) 경상북도의회의원,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현)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

도의원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농업인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 2) 농업인력 지원조례 제정 추진
- 3) 중고등학생 서울대학교와 멘토프로그램 개발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영천시 농민수당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 복숭아사랑동호회 간사, 전)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전)임고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효리리 이장, 전)임고농협 이사, 전)임고청년회 회장

<국민의힘>

윤승오 현 경상북도의원



- ◆ 주요 핵심 공약 3가지
- 1) 현재 확정된 대구지하철(금호)을 3사관학교까지 연장
- 2) 영천형 농업 프로젝트 추진
- 3) 어르신 복지정책 강화

◆학력 및 경력

▶대경대학교(사회복지학 전공) ▶현)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원, 전)윤석열 국민캠프 경북선대위 수석부위원장(영천총책임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영천선대위 공동위원장, 전)영천축산농협 사외이사, 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영천지역지부 의장(7선), 현)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개별 인터뷰는 다음호에>

<순서 선관위 기준>

6.1지방선거 영천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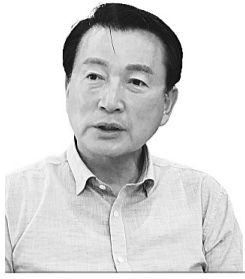
선거구	정당 (소속)	성명 (한자)	사진	직업	학력	경력	전과
(가) 선거구 북안 서부 완산 남부	더불어 민주당	최순례 (崔順禮) 여 (52세)		영천시의회의원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8대 영천시의회의원 (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없음
				공약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역 연장으로 완산역세권 다운타운 재창조 제2작전 사령부 영천 이전 추진 중고교 입학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		
	국민의힘	우애자 (禹愛子) 여 (69세)		영천시의회의원	서라벌대학교 미술 예술과 졸업	(전)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 8,9대 회장 (현)제8대 후반기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1건
				공약	도시재생사업 조기 완공(시와 추진위원회 협조) 완산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시설 확충. 먹거리촌 조성 e편한.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조속 추진		
	국민의힘	김선태 (金先泰) 남 (63세)		영천시의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북안면부면장 (현)영천시의회부의장	없음
				공약	미제공		
(나) 선거구 금호 청통 신녕 화산 대창	더불어 민주당	김형락 (金亨洛) 남 (54세)		회사원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전)영천시의회의원 (현)경북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영천시지부 운영위원	1건
				공약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을 조기 착공 청통와촌IC와 연계한 금호읍, 청통면 지역 생태주거환경도시 기반 조성 금호대창하이패스IC 완공		
	국민의힘	김상호 (金相鎬) 남 (58세)		농업	성덕대학교 아동보육복지상담과 졸업	(전)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현)국민의힘 영천시 조직국장	3건
				공약	지역 주민과의 민원해결 소통 창구 상례화 정부-국회의원-경북도-영천시-시의원을 잇는 여당 지역발전 창구 핫라인 설치 영농철 일손부족 및 경비절감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서만율 (徐萬律) 남 (57세)		경영인	대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전)영천시장 비서실장 (전)영천시체육회사무국장	1건
				공약	금호 읍민의 대중 목욕탕 건립 청통면 소재지 도시계획 수립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 의회 발전 연구회 및 포럼 구성		
국민의힘	김종욱 (金鐘旭) 남 (61세)		농업	동국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전)영천시 경제산업국장	없음	
			공약	영천경마공원 조기완공 영천 레저문화 정착 기여 신녕면에 마늘 출하 단지과 연계한 마늘 경매장 유치 공영산업단지 및 대창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			

<순서 선관위 기준>

6.1지방선거 영천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선거구	정당 (소속)	성명 (한자)	사진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나) 선거구 금호청통신영화산대창	무소속	이영우 (李泳雨) 남 (54세)		무직	영천고등학교졸업	(현) 경주이씨 영천시 청·장년회 부회장 (전)영천문화원 사무국장	5건
				공약	미제공		
	무소속	조성락 (趙成洛) 남 (55세)		농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전)사출성형제조업경영 (전)청통이장협의회사무국장	12건
				공약	미제공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창호 (曹昌鎬) 남 (62세)		영천시의회의원	성운대학교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졸업	(전)영천시의회 부의장 (현)영천시의회의원	없음
				공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건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 문화예술회관 신축건립		
	국민의힘	이영기 (李英基) 남 (54세)		영천시의회의원	대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전)경상북도 청년연합회회장 (현)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1건
				공약	익스트림 타운 설립추진 반다비체육시설 설립추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다) 선거구 동부중앙	국민의힘	하기태 (河基泰) 남 (62세)		정당인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영천시 행정자치 국장 (전)영천역사문화연구원장	없음
				공약	어린이집 보육예산 대폭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시스템 전면 개편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확대 및 중앙·동부동 불편 도로 집중 발굴 개선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적극 마련		
	무소속	김용문 (金容汶) 남 (47세)		회사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졸업	(현)영천 중앙로터리클럽 총무 (현)영동고 육상후원회 이사	없음
				공약	중앙동, 동부동 일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시내 곳곳에 방치된 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 도심권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조기 설치		
	무소속	전종천 (全鐘天)남 (61세)		영천시의회 의원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영천시의회 부의장 (현) 영천시의회의원	1건
				공약	미제공		
무소속	정희영 (鄭嬉英) 남 (52세)		시니어케어매니저	송현여자중학교 졸업	(전)참좋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없음	
			공약	미제공			
(라) 선거구 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	국민의힘	권기한 (權琦漢) 남 (51세)		(주)태백 건설 대표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졸업	(전)경북지구청년회의소(JC)지구회장 (현)태백건설 대표	3건
				공약	혁신 농업기법 도입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 어르신 경로복지정책 확대 수립 보현산·영천댐·호국원 연계 전통문화 및 호국 신관광자원 개발		
	국민의힘	이갑균 (李甲鈞) 남 (55세)		영천시의회 의원	경산대학교(현 대구한의대학교) 한문학과 졸업	(현)제8대 영천시의회의원 (전)영천시청년연합회장	없음
				공약	농업분야 시설투자 지원확대-샤인머스켓 수출 지속 추진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로컬푸드 특산 매장 적극추진		
	무소속	서정구 (徐正久) 남 (62세)		영천시의회 의원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 동물자원학과 졸업	(현)제8대 영천시의회의원 (전)고경면 청년회 초대회장	없음
				공약	고경-임고-자양-화북-화남 연계 관광벨트화 추진 청년농업인 발굴 및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로잔치 및 경로당 애로 개선, 충효문화교실 활성화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방안 추진		

우종철 칼럼



우종철

<본지 객원논설 우종철 박사>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일요서울 논설주간,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저서 「포용의 리더십」, 「신뢰와 원칙」, 「삼불망」, 「통일대와」 등>

국가 대개조(大改造)

"좌파 숙폐(宿弊) 청산하고

시무(時務)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文 정권,

"전진(前進) 대한민국 성장엔진 멈춰 세웠다."

역사의 모든 시기는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更張) 3기로 구분된다. 역사 전개에서 수성 시기가 오래 지속하게 되면, 정신과 문물제도가 병드는 시기가 반드시 수반한다.

이이(李珣)는 큰 병을 앓고 있는 200년 조선을 '중쇠기(中衰期)로 진단해 '경장론'의

해법을 제시했다. 경장을 위해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세기(조선)에서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을 필자는 법도가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져 국가 이념이 망각되는 '경장의 시기'로 본다. 따라서 좌파의 숙폐(宿弊)를 청산하고 시무(時務)를 밝혀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다시 일신해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위협하고, 세계 초일류 원전(原電)을 죽이며, 수 백조(兆) 빛을 미래에 떠넘기는 문재인 좌파정권은 건국 70여 년 동안 전진(前進)하던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멈춰 세웠다.

온 나라가 좌 편향된 국정이념의 포로가 되었다. 국민은 좌·우로 분열되고, 국가비전과 전략은 실종된 지 오래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두 달을 바라본다. 정부조직 개편안, 잠재성장을 반전 방향, 주력산업과 연금·노동 개혁안 등 주요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진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호(號)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정신'을 부흥하고 박정희모델을 발전적으로 재건해야 한다. 좌승회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

장은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박정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기업부국패러다임'이다. 둘째, 평등과 균형에서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차별화 정책'으로 가야한다. 셋째, '정치의 경제화'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시장·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정책'을 펴야 한다. 여섯째, 창조하는 국민으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일곱째, 상공농사(商工農土) 이념의 회복이 필요하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을까? 예스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단호히 부정한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도 없다. 그는 엄청난 애국심과 강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울곡은 "집이 오래되면 서까래가 썩고 기와가 부서지듯이 왕조도 창업하여 200년 정도 지나면 붕괴의 길을 걷는다"는 역사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다. 울곡은 16세기를 '토붕와해'(土崩瓦解)에 직면한 시대라고 진단했고, 그의 염려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울곡은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으로 늙고 병든 조선 왕조를 혁신하기 위해 '경장(更張)'을 주장했고, 조선 후기에 하나둘 실현되기

시작하여 대동법, 균역법, 서얼(庶孽) 허통 등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70년 전진이 멈춰선 누란지세(累卵之勢)의 대한민국이 선진통일로 나아가는데 울곡의 '경장론'이 방향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울곡의 '개혁론'을 회고하는 자작 한시를 소개한다.

능언지자구전문(能言知字口傳聞), 탈속입산자경문(脫俗入山自警文), 구도위두인미답(九度爲頭人未踏), 일신개혁대공훈(一新改革大功勳), 지리멸렬풍전암(支離滅裂風前暗), 누란경장환등흔(累卵更張換燈昕), 시무변통천고훈(時務變通千古訓), 동호문답만추훈(東湖問答萬秋薰).

말을 시작할 때 글자를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승려생활로 수행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글을 썼네, 과거에 아홉 번 장원 급제한 것은 전인미답이었고,

아주 새로운 개혁론을 설파하는 큰 공훈을 세웠네, (조선은)지리멸렬 바람 앞의 등불 같은 밤이 되었고, (나라가) 위태로워 경장과 등을 바꿔야하는 새벽이네, 시대에 힘쓸 일이 변통이라는 것은 오랜 가르침이고, 왕도정치의 이상을 밝힌 글은 만세토록 향기가 나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대회 영천시 처음 개최

전국 17개 지역 그라운드골프 아르신 700여 명 선수 및 임원...단포 잔디축구장 붐빈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29일 오전 9시 30분 영천 단포축구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째며,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영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주최, 영천시그라운드골프협회 주관이다. 전국 17개 지역 아르신 선수 600여 명과 100여 명의 임원·대회 관계자가 참가한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단체전 및 개인전으로 총 16홀 팀 합계 및 개인 합계 최저 타수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안전보행 3원칙 "보다-서다-걷다" 영천뽕, 등곳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영천경찰서(서장 민문기)는 3일 오전 금호초등학교 앞에서 영천시청, 금호읍사무소,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금호남·여자울방범대, 바르게살기 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등곳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지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 시행 전까지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등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먼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이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범인이 직무관련

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또,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금지사항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이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적용사례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제공하고,친인척은 이를 알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획구역내의 부동산을 취득,차익을 얻었다. 이경우 징계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 조선왕조 태실 54개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북도가 2017년도에 도내 태실유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 지역에 많은 태실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태실(유형문화재), 예천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재) 등 54개소의 태실의 태주를 확인한 것이다.

왕실의 태실문화는 서양은 물론 인근의 중국, 일본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생명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실유적은 신라 김유신의 태실이며, 왕실의 태실 조성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상북도는 전국 3개 광

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왕조 태실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가진 경기·충남도 등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건 가운데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야고분군을 비롯해 신라·유교문화에 기반 한 미래유산 또한 풍부하며, 새로운 유산의 발굴과 등재된 유산의 보존·활용에 있어서도 메타버스 등 첨단 ICT사업과 연계해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한우 기자

동정

5일부터 당 후보 출정식 시작



이만희 의원은 5일부터 9일까지 6.1지방선거 국민의 힘 후보자들 출정식을 갖는다. 이 의원은 5일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9일까지 모든 출정식을 끝내고 본격 선거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청문회 일정으로 6일 출정식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5일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오전 11시에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리는 뚝이 어린이날 기념식과 12시에 천년숲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큰잔에 잇따라 참석해 새싹들이 아톰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고령 대가야생 활촌과 선비문화수련을 차례로 참석해 어린이날 일정을 이어간다.

화통 콘서트 첫 모임 갖는다



주원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일 대회의실에서 고경력 수석교사와 저경력 신규교사의 매칭을 이루는 2022학년도 「화통,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첫 모임을 갖고 맞춤형 장학을 실시했다.

이날 주 교육장은 신규교사의 발령을 축하하며, 영천에서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여 학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는 참 스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시기 지역 소외센터 순회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노인회 영천지회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180명의 노인대학생의 만학을 축하했다. 또 조 의장은 오는 6일 의회 사무국 직원 10여명과 함께 임고면 덕연리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참석한다.

이원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재선 성공



“학생·학부모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힘쓰겠다”
영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역량강화교육
“위원회가 학교 운영 디딤돌 되길”

매년 실시하고 임기 1년인 영천시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이원호 별빛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지난달 28일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4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한 후 협

의회장 선거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의 이번 연수는 각급학교에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영천교육 실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연수 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는 양병열 성남여중학교운영위원장과 이원호 별빛중학교학교운영위원장 두 명이

출마한 협의회장 선거에서 ▲지역협의회장(별빛중학교 이원호)이 지난해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감사는 영안중학교 박현준, 선화여자고등학교 이혜안 등 임원도 선출됐다.

이원호 협의회장은 이날 "교육청과 소통하고 각 지역협의회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며 재선 소감을 전해왔다.

또 주원영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회가 교육 현안, 정책 등에 대해 협업하며 바람직한 학교 운영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뽕, 금융사기 범인 검거 유공 영천축협 정재용씨에 표창

경북 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 동부로지점 직원 정재용씨(48)가 거액의 보이소피싱 방지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해 영천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16시30분경 영천축협 동부로지점(지점장 오세창)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오만원권 현금을 삽어 차례 송금하는 B씨를 보고 보이소피싱범인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2일 경찰서가 밝혔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씨가 ATM기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범인 B씨가 거금을 수차례 송금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수증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TM



기 사용 설명 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소피싱 송금액 B씨를 검거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했다.

민문기 영천경찰서장은 "정씨의 세심한 관찰과 판단으로 보이소피싱 송금액을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과학고, 영천호국원 참배... 태극기 바람개비 화단 만들었다



호국 영령들께 감사메시지 전해

경북과학고등학교(교장 천종복) 학생·교사 25명이 3일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 호국원 내 태극기바람개비를 화단에 설치해 호국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이 따르면 이날 학생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충탑을 참배하고 국가유

공자 비석닦기 봉사활동에 이어 '태극기 바람개비를 화단에 꽂아 영령들께 감사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배객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글로 적어보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작성된 메시지는 태극기 바람개비에 달아 6월말까지 내방객들이 관람 할 수 있게 게시하여 불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청마골프동호회’ 회원 모집

5월은 어른들의 소풍 골프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체육활동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자연과 함께 푸른 잔디에서 시원하게 날리는 맛! 누구나 공감하는 골프의 매력입니다. 저희 '청마골프동호회'는 신규회원이 함께 즐기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창립일 : 2014년 12월 6일(회원수 : 52명)
회 비 : 남성(3만원), 여성(2만원)/월
[필드라운딩]
케이P 지원
전반기 2회 : 5월과 6월
후반기 2회 : 9월과 10월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 김경수, 총무 정용락
연락처 010-5912-6613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근로소득자 월세세액공제 요건

월세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 세액공제 적용 안돼 세대요건...
-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 달리 해도 동일 세대 적용 월세액 요건...
- 임대차계약서주소(주민등록등본상주소) 동일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월세세액공제 만큼 소중한 공제항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월세액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맞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월세세액공제는 급여와 세대, 주택, 월세액의 요건이 있다.

먼저 급여요건이다. 월세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간 지급한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공제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즉,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세대요건이다. 연말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음으로 주택의 요건이다.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요건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위해서 지출한 월세이어야 한다.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에 한가지 만 선택해서 적용받아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증서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등의 입증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실거주지 지번 다르면 임대차보호법 보호 가능한가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면 보호 못받을 수도 '산'자 뺀 주소 빨리 교정해 주민등록 다시해야

▶ 최근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면서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이 경북 영천시 동부동 산 00의 0에서 '산'자를 빼고 동부동 00의 0로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실이 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가 가능한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그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올바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놓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5.25. 99다8322 판결, 1999.9.3. 99다15597, 1999.12.7. 99다44762 · 44779).

이때 주소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번지, 즉 지번을 말한다. 「토지대장」상의 토지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와 건물의 토지대장상의 실제의 지번이 다른 경우 건물의 실제 지번, 즉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해놓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임차건물의 실제 지번이 산00의 0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는 실제 지번과 달리 '산'자가 빠진 00의 0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00동 00의 0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다.

때문에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해당 건물의 실제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실제 지번을 주소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려고 의도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은 위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임대차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6.9. 2000다8069).

따라서 귀하는 빨리 '산'자를 붙인 주소로 주민등록을 다시 해놓아야만 그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사설]

의회 자료제출 거부한 영천시... 알고 보니

무소불위(無所不爲)는 힘과 권력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부정적 표현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로 사마천의 저서 '여불위전'에서 진시황제를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표현하면서 고사성어로 자리잡았다. 바로 북한 김정일의 폭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선7기들어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땠가! 북한 김정일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많은 점에서 의구심이 발동한다. 먼저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보기 좋게 거절했다. 의회 법적 권리에 대한 법령의 요구무 위반이다.

지난 3월말 조 의장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기문 영천시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자료요구권을 발송했다. 자료는 교육일자, 집행예산, 감사(소속 및 이름), 교육내용 4개 항목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현황'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거절했다가 20일만에 본지 기사가 나가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제출했다. 28일 걸렸다. 그것도 이미 공개된 자료인 감사 이름과 소속을 속 빼고 반쪽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 권력인사 모시기
최기문 민주당과 거리 좁히기 노골화

본지는 도대체 요구 자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 그렇게 거부했을까 싶다. 본지가 강의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결과 알고보니 자료 속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전남 화순출신 강운태 전)광주시장(1.5시간 강사료 1백만원), ▲허성관 노무현정부 첫 내각인 전)해양수산부장관(1.5시간 1백만원),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위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1.5시간 69만9천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표 등 영천시 총무과에서 만 2018년 8월~2019년 9월사이 11개월 동안 총 6건에 강사료만 500여만원(11.5시간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435,000원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일각에서는 "최기문 시장이 부쩍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 좁히기를 노골화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영제 의장은 "최기문 시장이 이번 자료를 감추고 싶었던 것은 가뜰이나 민주당과 껍을 같이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를 감추고 싶었던 아니냐"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최 시장의 민주당 바라기는 이 뿐이 아니다. 본지 지난해 학도병상 설치 허가를 반대한 이유도 "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공문에 적시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과의 거리두기도 격하게 벌어왔다. 최 시장은 경마공원 원안조성을 위해 행안부를 다녀오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의원을 패싱하고, 최 시장의 취임해에도 제1야당인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의 영천방문 때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패싱했다.

더군다나 최 시장은 특히 2019년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영천 추모 행사에서도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의 행사비용 예산지원을 흔쾌히 수락하는 아름다움을 보였다. 그것도 14일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자 14일 당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지급했다.

또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을 "최기문 시장이 했다"는 한 민주당 당원의 증언이 나왔으며, 특히 민주당 한 인사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우리(민주당)는 최기문 시장을 밀어야 한다"고 발언해 최 시장의 민주당과의 거리 좁히기는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결국 지역 시민들이야 뭐라던 말던 그리고 의원들이야 요구하던 말던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진시황제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지역 보수 우파들은 최시장이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발톱을 숨기는 것으로 판단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영천교육지원청]

영천교육,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지난해, 전·후반기 우수 학교지원센터 선정, 2021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시지역)우수 기관 선정 등 빛나는 성과를 올린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섬김의 철학과 겸손의 자세로 학교 현장을 살피고 교육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힘쓰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온전한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2022년에도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을 통해 호국·충절의 고장, 영천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22 영천교육의 중점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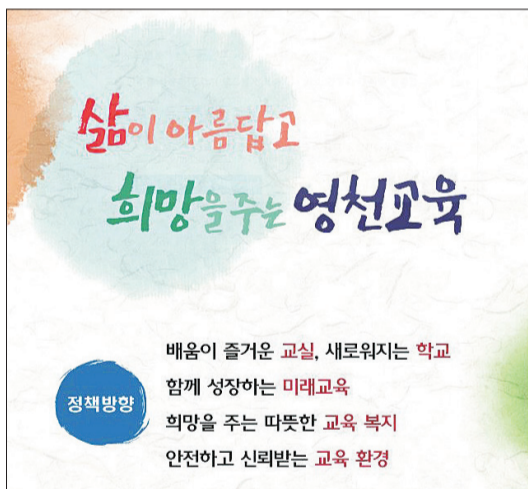
영천교육지원청 주원영 교육장



■ 비전.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영천교육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보고 배우며, 비교·경쟁 보다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행복의 크기를 키워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 4대 정책방향 배움·성장·희망·신뢰



삶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 새로워지는 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 복지'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설정했다.

■ 특색사업 1. 호국문화와 함께하는 골별인의 나라퍼기 프로젝트



향토 위인 3선현(정몽주, 최무선, 박인로)의 생애 업적 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호국의 얼을 찾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내 고장 체험 탐방 및 사제동행 지역 탐방, 영천 바로 알기 체험 행사 참여, 전입교사 지역 문화 투어 등을 통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郷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초·중학생 대상 「호국충절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은 참가했던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특색사업 2. 더불어 나아가는 맞춤형 글로벌 Y-edu 운영



영천영어타운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교육 및 지역민 대상 영어교육 전개, 영어 영재교육 운영을 비롯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국제교류 추진,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5학년 전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외국인 대학생 초청 수업 등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 역점과제 1. 학교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사업



지자체와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체육·인성 분야의 학교별 특화사업을 통해 학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자 한다. 2022년에는 초등 10교, 중등 4교에서 교당 200~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케스트라, AI교육, 건강프로그램, 책만들기 등 학교 교육과정의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역점과제 2. '화통(火通)'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



매월 4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화통, 수업공감·회복적 생활교육 콘서트」는 유·초·중학교 신규교사 및 저경력교사와 수석교사 간 매칭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창의적 협력학습 방안 등의 수업 방법과 생활교육 전반에 관련된 지도 방법을 주제로 연간 8회 진행된다.

■ 더해주고(+), 덜어주는(-) School Support, 영천 학교지원센터



지난해 '우수' 학교지원센터 표창을 2회 수상한 영천 학교지원센터는 새로운 업무 발굴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더 많이 지원하고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지원청 역할재구조화 시

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지원청의 미래지향적 기능 개편과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다른 교육지원청과 차별화된 학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천교육,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지난 3월에 부임한 제32대 주원영 교육장은 「2022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실현을 위해 '섬김'과 '겸손' 그리고 '변화'라는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며 청직원 모두가 더 낮은 자세로 원칙을 지키며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생에게는 즐거운 배움과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교원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노력하는 영천교육지원청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



<이 기사는 영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